

# 내적 정신혁명의 만파(萬波)를!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참가학회) 회장

2004년 1월 26일

‘평화의 문화’를 민중의 손으로!

“발 밑을 파라. 그곳에 샘이 있다”

하드파워의 한계 응시한 평화구축의 길을

‘생로병사’는 탁월한 문명관

제29회 ‘SGI의 날’을 기념하여 세계평화를 위한 모색의 일단으로 제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선 국제사회는 새로운 위협의 대두와 그 대응을 둘러싸고 격진(激震)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동시다발 테러사건’ 이래, 많은 일반시민을 끌어들이는 무차별 테러가 각지에서 속출하는 한편, 핵무기나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특히 지난해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둘러싼 사찰문제가 큰 초점이 되었습니다.

## 이라크 문제가 제기한 난제

12년간에 걸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 결정한 수많은 결의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행사의 시비를 두고 국제사회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3월 미영 양국이 최종적으로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21일간의 전투로 후세인 정권의 붕괴를 초래하기는 했지만 그 후 이라크를 점령 통치하는 미국과 관계국, 나아가 유엔을 표적으로 하는 테러와 총격사건이 이어져 이라크 재건과 중동지역의 안정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미한 상황은 3년 전, 테러조직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해 군사력이 행해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달에 겨우 헌법이 채택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구(舊) 탈레반 세력의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가 계속되는 등 치안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을 간과하거나 방치하지 않으려면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군사력에 치중한 접근만으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문제에 덧붙여 지금 세계에서 큰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문제이고 북한의 핵개발 문제입니다.

이들 모두 전도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전란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시대의 암운의 두께와 함께 심각한 것은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기 시작한 마음입니다.

즉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에 군사력과 같은 강제적인 힘으로 사태의 타개를 시도하고 있지만, 평화에 대한 확실한 광명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불안감이며 초조함 그리고 무엇보다 폐색감(閉塞感)이 아닐까요.

## 대증요법이 아닌 발본요법의 길을

분명 군사력에 상징되는 하드파워 행사로 일시적 사태 타개를 도모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증요법<sup>1</sup>적인 성격이 강해 오히려 ‘증오의 씨앗’을 분쟁지역에 남겨 사태를 교착화(膠着化)할지도 모른다는 점은 많은 식자가 우려하는 것으로, 사실 그러한 상황은 도처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2회에 걸친 제언에서,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가 ‘증오와 보복의 연쇄’에 빠지지 않고 어떤 효과를 낳으려면 그것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측에 철저한 ‘자기규율’ ‘자제심’의 작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파워를 포함한 형태로 국제사회가 발맞추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한 것도 그러한 강한 우려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행위의 뒷받침으로서, 문명이 문명다운 증거라 할 수 있는, ‘타자(他者)에 대한 시선’

---

<sup>1</sup> 대증요법(對症療法)

병(病)의 원인을 다스리기 곤란한 경우, 겉으로 나타난 증상만 치료하는 방법

을 바탕으로 ‘자기규율’의 정신이 없다면 설득력이 생기지 않아 평화와 안정으로 결부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행사의 시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균열은 아직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국이 거기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대중요법의 범위를 넘어 발본요법(拔本療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함께 모색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거듭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즉 테러와 전쟁이라는 오늘날의 ‘비대칭전(非對稱戰)’의 수렁화를 방지하고 약간의 실효를 거두려면, 테러리스트 측의 자제를 바랄 수 없는 이상, 그것과 대치하는 측에게 하드파워를 행사하는 것보다 상대의 입장을 심사숙고하는 자제심을 견지하며 빈곤과 차별 등 테러리즘의 온상에 과감하게 메스를 가하는 용기 있는 도량이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명의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자유’와 ‘민주주의’를 문명의 과실(果實)인 보편적 이념으로서 거론해도 ‘남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고친다’라는 자제심에서 발하는 호소와 메시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으로 만드는 힘’(조지프 나이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 원장)인 소프트파워의 ‘형태’로 민중의 마음에 다다르지 않는다면 내실을 수반하지 못한 헛된 슬로건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걱정을 아무리 해도 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러한 사태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대응(그 기본적 스탠스에 대하여 지난해와 지난해 제언에서 말했습니다)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테러와 무력보복의 끝없는 응수로 상징되는 황량한 시대의 폐색상황, 시대정신의 부식된 근본 부분에 나름대로 메스를 가하고자 합니다.

### ‘타자에 대한 시선’에 근거한 ‘자기규율’

지금까지 조금 언급은 했지만 어쩌면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의 심부에, 표층부분이 아닌 심층부분에, 일종의 뿌리가 썩어가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부분을 절개하지 않는 한 폐색 상황에 숨통을 틔울 수 없다는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만년(晩年)의 석존이 “자귀의(自歸依)”(자신을 의지할 곳으로 삼아라)라고 강조하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겼듯이 인류가 ‘타자’의 거울에 비추어 ‘자기’를 의식하고 자각하기 시작한 이래, 말하자면 인류의 정신사적 과제이지만, 이 제언에서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듯한 테마를 논급(論及)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선을 글로벌한 지평에서 발 밑으로 옮겨 현대 일본에 절박한 과제인 교육 문제에 초점을 두어 논하고자 합니다.

## ‘자유와 규율’이 호소한 것

교육에 관련해서 청년 시절 독서의 추억을 하나 회고하고자 합니다.

제 청년 시절을 보자면 말할 나위도 없이 종전을 사이에 두고 시대가 급격하게 변해 가치관이 하루 아침에 180°전환했던 혼란기였습니다. 전쟁 중인 어두운 시절, 가혹한 압정과 전쟁에서 벗어난 해방감도 있어 점령군이 가지고 온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말은, 지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신선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풍조 속에서 읽은 책 중 한 권이 당시 게이오대학교 교수로 계신 이케다 기요시 씨가 쓰고 이와 나미신쇼에서 발행한 ‘자유와 규율’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이케다 기요시 씨가 영국의 퍼블릭 스쿨과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8년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3년간 수학한 경험을 기초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자유라는 것은 청년기, 특히 퍼블릭 스쿨에 다니는 시절(12·13세~18·19세)에 엄한 인격의 도야와 단련이 없이는 배울 수 없다는 것, 만일 그런 것이 없으면 자유는 제멋대로인 방종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책에는 민주주의 모국 영국의 정체(政體)를 떠받치고 있던 어두운 부분, 즉 민족적, 계급적 차별 또는 식민지 수탈이라는 ‘부(負)’의 측면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반군국주의, 반파시즘의 압도적인 조류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말은 하루하루의 형편이 식량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별과 같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자유와 규율’에서 앵글로색슨식 민주주의 본질이 응축된 듯한 신선함을 느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 다음과 같은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의 경찰견을 훈련하는 전문 조련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는 기분이 안 좋거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날에는 훈련을 쉬기로 했다. 그런 때는 훈련 중에 어떤 일로 정말 화를 내고 말기 때문이다. 훈련 과정상 개를 혼내야 할 필요도 있어 채찍을 사용하거나 때에 따라 발로 차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정말로 화를 내고 만다면 더는 그 개의 훈련을 할 수 없다. 개가 조련사를 경멸하기 때문이다. 경멸하는 인간의 훈련 따위 개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전문 조련사에게, 훈련받는 상대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고 둘도 없는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케다 기요시 씨는 이것을 인격 상호 간의 도야, 훈육의 장(場)인 교육에 빚대어 “3년 가까이 독일에 유학하면서 둔재가 배운 것이라곤 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까지 단언하고 있습니다.

### 소프트파워에 따른 정신개혁의 ‘일보(一步)’를

#### ‘연속적 폭력’을 낳는 인간부재는 교육황폐에서 보이는 사회의 병리(病理)와 같은 뿌리

음미할 점이 많은 말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선명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이 조련사에게 경찰견이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강한 저항감을 나타내는 ‘타자’로서 틀림없는 실재감을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타자’가 있으므로 ‘자기’가 있고 ‘타자’나 외부의 저항 내지 벽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제심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자제하기 어려울 때는 훈련을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기 일처럼 여겨지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생기가 도는 정신, 긴장감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 없이 ‘타자’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긴장감이 없었더라면 순식간에 경찰견의 경멸을 사고 경찰견은 조련사에게 ‘타자’이기를 그만둡니다. ‘타자’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이에 연동하여 ‘자기’의 존립조차 의심스러워져 그 당연한 귀결로 훈련에 성의를 다할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인간사회에서 일어날 경우 몇 겹, 몇 배에 달하는 민감한 문제로 표출될 것입니다.

저자는 “20년 가까이 교직에 있으면서 아직도 이처럼 명백한 이치가 몸에 배지 않았다”라고 한탄하고 있지만, 뛰어난 교육자이기에 가능한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력 저하와 ‘집안주의’

이 책이 출판된 지 약 반세기가 지났지만, 반대로 오늘날 청소년을 둘러싼 상황, 즉 학교교육에 그치지 않고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교육세계에서 과연 명물교수(名物教授) 이케다 기요시 씨가 제시한 것과 같은 건전하고 건강한 긴장감과 의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종래의 상식을 일탈(逸脫)한 일부 젊은이들의 행실이 세상의 빈축을 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친 교육력 쇠퇴와 ‘자기’와 ‘타자’의 대치가 낳는 긴장과 거의 무연한 ‘해이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리는 – 위험성을 예견하여 경고하는 – ‘깡도(坑道)의 카나리아’가 아닐까요.

한때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2대 명물은 어린이를 강아지처럼 귀여워하며 키우는 온실교육과 관광지의 쓰레기 더미라는 아유를 받았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마주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온 전후 민주주의

하의 해이한 상황을 말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자유와 규율’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기’와 ‘(자연환경을 포함한) 타자’가 서로 접촉하거나 공격하며 생기는 긴장감 속에서 단련된다는 자명한 이치를 세월과 함께 풍족해진 만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와 ‘타자’,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적 공간에 숨어 버리거나, 본래 공적 공간에서 아무렇지 않게 자기식으로 밀어붙이는 오늘날 젊은 세대의 모습을 마사다카 노부오 씨(교토대학교 교수)는 ‘집안주의’라고 말합니다.

어떤 장소에 있던 ‘집’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응석을 부린다면, ‘타자’를 의식할 때 비로소 형성되는 ‘자기규율’의 형태인 ‘공덕심(公德心)’이나 최소한의 예의, 긴장감 등이 몸에 익혀질 리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애써 그렇게 하려고 의지를 지속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항감 없는 진정한 ‘타자’의 느낌이 결여된 밋밋한 평면사회가 자유로운 듯 보여도 실제로는 어딘가 숨막히는 듯한 살기 힘든 사회가 아닐까요.

작사가 야쿠 유 씨가 의미심장하게 “무엇이든 있으며 아무것도 없다”라고 평한 것처럼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것 같으면서 항상 뭔가 욕구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폐쇄된 상황일 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어렵게 느끼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 계승되지 않은 사회 관습

잘 아는 어느 언론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이미다스’ 별책부록 중 하나로 ‘이런 때는 어떻게? 최신 매너 55’라는 소책자에, 문자 그대로 젓가락 사용방법부터 관혼상제의 예의까지 다양한 예의 범절에 관한 정보를 간략하게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연감(年鑑)’ 종류의 부록은 대부분 책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소책자는 이례적인 것으로,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라는 하나의 상징이 아닐까”라고.

확실히 그런 정보의 대부분은 한 10년 전만 해도 가정이나 지역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 것인데 그것을 굳이 거론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현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제가 교육황폐와 같은 신변 문제를 논급했는지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황이 드러내는 모순과 병리는 폭력의 연쇄가 종식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현대문명이라는 심각한 상황의 병근(病根)과 깊이 상통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타자’를 잊어버리면 인정불감증(人情不感症)이라고 할까, 주위 사람들과 사물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나 시니시즘(냉소주의)에 상징되는 생명 감각이 닳아서 무디어져 마비에 이

르고 맙니다.

이러한 병리는 청소년의 어두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가 지지난해 이 제언에서 “자기 편의 인적 손실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상대방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게다가 그 규모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상황이, 인간의 생사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불감증을 항진(亢進)시킨다”라고 경고한 현대 하이테크 전쟁의 병리로 확실히 그 기반이 이어져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라크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도입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시행착오라기보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서구사회와 다른 종교적 이념에 기반을 둔 윤리관과 가치관을 지닌 이슬람사회 사람들에게 그런 보편적 이념이 어떤 의미와 매력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종류의 반문은 신중히 행해졌을까요. ‘타자’ 감각은 충분히 고려했을까요. 전부 작은 상황부터 그 근거에 상통하는 큰 테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일보’ 내딛고자 합니다. 앞에서 ‘멀리 돌아가는 것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문명의 궤도 수정이라는 대사업을 위한 실천적인 직도(直道)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가정에서 시작하는 ‘평화의 문화’

우리는 지난해 3월, 소카대학교와 소카단기여자대학에 초두리 유엔사무차장을 맞이하여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무차장은 ‘졸업은 세계 평화를 위해 떠나는 출발’이라고 진심 어린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초두리 사무차장에게서 올 연초에 신년 메시지를 받았는데, 내용 중 주목할 것은 세계 평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정’이나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신 점입니다.

말하시기를 “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가정에서는 자립적이고 창조력이 있으며 곤란에 맞설 줄 아는 사람이 육성됩니다. ‘평화의 문화’라는 메시지와 관용, 상호이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를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가르친다면 수십 년 앞의 세계는 대립과 폭력이 만연하는 오늘날과 같은 사회는 크게 바뀔 것입니다”라고.

유엔이라는 세계적인 위치에서 평화를 위해 땀을 흘리는 분의 말씀이라 천근의 무게가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혼미하면 혼미할수록 하드파워를 통한 응급처치와 함께 혼(魂)의 차원까지 미치는 소프트파워에 따른 정신토양의 개척이 뒤따르지 않으면 항구 평화에 단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습니다. 그 개척작업의 불가결한 장소가 가정이나 가족이라는 작은 원초(原初)의 공동체라는 인식에 도달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직한 외무성의 오쿠 가쓰히코 대사가 보낸 ‘이라크 소식’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한탄하면서도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의 빛나는 눈동자입니다” “이라크 어린이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이 나라의 장래는 반드시 밝아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참으로 정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이라크를 비롯한 분쟁지역에서 불신과 증오의 불길을 불태우는 어른들의 눈을 보고 있다면 절망적인 기분조차 엄습해 오지만, 반대로 어린이들의 빛나는 눈을 보면 이 인류사의 아포리아(난문<難問>)에 한줄기 서광(瑞光)이 비치는 듯한 느낌이 깊게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육성하고 혼을 활성화하는 장소인 교육현장에 더욱더 빛을 비춰야 한다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청년을 각별히 사랑한 은사 도다 조세이 2대회장의 젊은이에 대한 뜨거운 호소가 떠오릅니다.

“중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투쟁입니다. 그런데 청년 중에 부모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많은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신의 무자비함을 극복하고 부처의 자비의 경지를 획득(會得)하는 인간혁명의 투쟁입니다”라고.

중생을 사랑한다는 불교의 극치이자 인류애의 진수인 자비라 하더라도, 부모를 사랑한다는 신변의 ‘일보’가 없다면 공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발 밑을 파라. 거기에 샘이 있다”라는 말처럼 하루하루 착실한 생활 속의 ‘일보’는 사소한 것 같지만 실은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육친의 애정을 초월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하나의 인격체, 즉 ‘타자’로 정하고 서로 접하고 부딪치며 도야하는 단련의 지속이야말로 현실적인 ‘일보’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발길을 돌려 지역사회의 ‘공덕심(公德心)’의 발로에서 시작하여 건전한 애국심과 보편적인 인류애를 향해 똑바로 걸어갈 것입니다.

액상화(液狀化)현상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요즘 시대정신의 참상과 쇠퇴를 보고 있으면, 평화라는 커다란 문제도 가까운 곳부터 바라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결여되면 발본적(拔本的) 해결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확실한 ‘일보’를 내디뎌야 합니다.

## 도다 2대회장의 ‘원수폭금지선언’

### ‘생명에 숨은 마성(魔性)’과 대결을 호소

여기에서 은사의 불멸의 유언이자 메시지인 ‘원수폭금지선언’에 한 번 더 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1957년 9월, 서거 약 7개월 전에 병이 조금 호전된 상태에서 스승이 전 생명을 다해 발표한 이 선언은, 전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절대악’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그 폐기에 앞장서는 사명을 ‘가장 먼저 유훈(遺訓)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청년들에게 의탁했습니다.

그 핵심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 또는 원자폭탄의 실험금지운동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근거에 숨어 있는 부분의 뿌리를 근절하고 싶습니다. 만약 원수폭을 사용한 자는 어떤 나라든,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모조리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세계의 민중은 생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마(魔)이며, 사탄이며 괴물입니다.”

당시는 동서냉전의 대립의 격화로 미국과 소련을 비롯해 각국이 핵실험을 반복하고 성능 향상에 혈안이 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은사가 ‘사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청년들에게 철저한 정신투쟁을 호소한 것은 ‘묵시록적인 무기’라고 불리는 핵무기의 악마성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단, 여기에서 말하는 ‘사형’이란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진의는 어디까지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생활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고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욕망 즉 불법에서 설하는 타화자재천<sup>2</sup>이라는 생명에 숨어 있는 마성을 근절해야 하는 중요성을 호소한 것입니다.

핵무기를 ‘힘에 따른 균형’의 관점에서 ‘필요악’이라고 타협하는 핵 억지론(抑止論)의 환상을 부수고 그 근거에 있는 생명 경시의 사상에 강한 경종을 울린 선언의 의의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 근거에 숨은 뿌리를 근절하고 싶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날 문제에도 통하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나 군사적 사고의 틀을 깨뚫은 ‘생명’이라는 근원적인 차원에서 ‘근거에 숨은 부분의 뿌리를 근절하고 싶다’라고 한 투철한 시선과 통찰력이자 안목입니다.

본론의 문맥에 비추어 말하면 ‘뿌리를 근절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마음속에 ‘타자’를 부활시켜 확실한 반응을 느끼면서 – 반응을 느끼지 않거나 무시하고 상대를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이 ‘타화자재천’으로 ‘타화’의 ‘타’란 제가 말하는 ‘타자’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 자기를 컨트롤하는 ‘자기규율의 마음’이며 ‘욕망

<sup>2</sup>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불법(佛法)에서 설하는 ‘사마(四魔)’라는 생명의 마성의 하나. ‘대지도론’에는 “타(他)가 화(化)하는 곳을 빼앗아 자신이 오락(娛樂)하므로 타화자재라고 말한다”라고 있다. 욕망의 세계에 속하는 육천의 최상에 살기 때문에 ‘제육천의 마왕’이라고 하기도 한다.

의 통제’, 즉 ‘내면의 제패’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뿌리를 근절한다’라는 어려운 작업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보’에서 시작하여 원수폭금지라는 인류사적 과제까지 상통하는 연결된 테마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합리주의에 근거한 근대문명은 욕망이 향하는 대로 자아의 끝이 없는 표층적 확대를 제1의 원리로 삼아 전력 질주해 왔습니다.

지구상 전 민중의 ‘생존할 권리’를 담보로 특정국의 우위와 안전보장을 도모하려는 핵무기는 그 최대의 존재며, 과학기술과 군사목적이 결합하여 탄생한 ‘욕망에 봉사하는 문명’ 특유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가 된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타자를 향한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공덕심’ ‘공적의식(公的意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 듀이의 민주주의론에 맥박치는 ‘공중상(公衆像)’

### ‘타자(他者)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생명감각

### 정보화 사회에서 진행되는 인간 연대 의 희박화

지금부터 1백년 전, 제국주의나 식민지주의가 세계를 석권한 시대에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창가학회 초대 회장은 《인생지리학》에서 이러한 정치풍조를 ‘국민적 이기주의’라고 말하고 “국가는 개인을 떠나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의 목적은 즉 개인의 심층을 실현하는 욕망”이라고 지적하며 한 인간의 인생도, 국가도 평등하게 그 최종 목적을 ‘인도주의’에 두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주의’는 자기뿐 아니라 타자의 행복까지 추구하여 행동해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점에 관해 마키구치 초대 회장이 미국 사상가 듀이의 교육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는데, 그가 제시한 민주주의론의 근본에 있는 ‘공중(公衆)’이라는 아이덴티티(정체성: 자신이라는 근거)는 시사적입니다.

듀이는 ‘공중과 그 제반 문제점’이라는 논고 속에서 작가 허드슨이 묘사한, 빌트시아에 있는 어느 마을 정경을 통해 하나의 구체적인 모티브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집은 인간생활의 중심이고 또 새나 짐승들이 생활하는 중심이기도 하며 더군다나 그 중심은 서로 겹하고 있어 그들은 마치 손을 잡고 늘어선 어린이들의 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마을 변두리에 위치한 오두막집에서 사는 사람이 힘겹게 나무토막이나 나무뿌리를 잘게 자르고 있다가

무겁고 날카로운 도끼를 발에 떨어뜨리고 말아 큰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자.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사고 소식은 입에서 입을 통해 1마일이나 떨어진 마을 끝까지 날개 돋친 듯이 전해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곧바로 이 사고소식을 알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재난을 입은 순간의 동료인 마을 사람의 모습과 날카롭게 빛을 번뜩이는 도끼가 발등에 떨어지고 상처에서는 빨간 피가 세차게 솟구치는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또 마치 자기 발이 상처를 입은 듯이 느껴 자기 몸에 충격이 전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현대정치학의 기초》 아베 히토시 역, 미스즈서방〈書房〉)

동료의 몸을 덮친 재난을 단순히 사실로써 알 뿐 아니라 그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느껴 남이 체험한 것을 자기 체험으로 하는, 그 풍부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감수성과 생명감각이야말로 ‘공중’이라는 아이덴티티의 핵심입니다.

제가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은 그 압도적인 실재감과 생생하기까지 한 살아 있는 리얼리티입니다.

그곳에서는 인간끼리는 물론이고 새나 짐승과 같은 동물들, 대지나 초목에 이르기까지 서로 ‘타자성’의 윤곽을 똑똑히 각인하지만, 결코 무관하지 않는 운명공동체로써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하여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사람들은 아이덴티티를 획득하고 자신의 삶을 살고 또 죽는 데에 대한 의미 부여, 공동체라는 전체 속에서 개인의 생사의 자리매김을 확인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연상해 보면,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서 작가의 자화상에 가깝다고 하는 인물로 《코사크》에 나오는 오레닌,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레빈 등, 도회지의 인텔리겐치아(러시아 지식계급: 혁명적 지식인)에게 뜻밖의 계시처럼 찾아오는 만유생명(萬有生命)과 합치하는 혼의 고양에도 통하는 법입니다.

듀이는 “이와 같이 친밀한 상태가 있으면 국가 등은 하찮은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것은 베르테르가 “당신의 저서를 읽으면 사람은 네 발로 걷고 싶어진다”라고 비아냥거린 루소 계통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루소가 거기서 인민주권의 사회이론을 구축했듯이 모두 ‘인위’를 배제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기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듀이가 말한 ‘공중’도, 제1차 세계대전 후 대중의 본격적인 정치참여가 진척되는 시대의 ‘공동관심’ ‘공적 의식’의 참모습을 고찰한 것입니다. 즉 촌락과 같은 ‘소규모 공동체’가 해체되는 가운데 형성된 ‘국가’라는 틀을 ‘대규모 사회’에서 어떻게 ‘(공중을 구성원으로 삼는) 대규모 공동사회’로 메타모르포제(변용)해 가는가 하는 테마에 대한 모색입니다.

그리고 듀이가 명시적으로, 때로는 암시적으로 말한 바와 같이 촌락공동체의 주인이 공유하고 있던 ‘공덕심’ ‘공적 관심’의 모체인 아이덴티티의 원기(原基)와 같은 것을 어딘가에 계승하고 보존하지 않는 한, ‘대규모 공동사회’ 형성은 의심스럽습니다.

듀이는 ‘대규모 공동사회’를 형성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매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매스컴이 건전한 ‘공덕심’ ‘공적 관심’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만전의 역할을 다해 왔는지 아닌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매스컴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타자’에 대한

무관심과 시니시즘(냉소주의)의 만연은 옛날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듀이가 제기한 과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증폭되면서 현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추세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현대의 2대 사조라고 할 만한 글로벌리제이션(세계화)과 버추얼리제이션(가상화)입니다.

두 가지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양쪽이 서로 맞물려 산업사회 이후라는 문명사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나홀로 승리’라는 상황도 있어 글로벌리즘에 대한 비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정보화 그 자체는 거스르기 어려운 하나의 흐름이기에 그 공로와 죄과, 빛과 그림자를 속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보화 사회가 내포하는 본질적인 버추얼(가상)성이라는 점입니다.

### 버추얼화가 초래하는 위험성

근대화를 이어받은 정보화의 거센 물줄기는 편리성과 효율성의 유무로써 무리한 힘으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종래에 사회를 구성하던 가정, 지역, 직장, 학교, 국가 등의 틀을 해체 또는 약체화하여 사람들을 격리하고 있던 거리와 공간의 벽을 제거함으로써 어느 사이에 세계적인 네트워크 사회를 출현시켰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텔레비전이나 퍼스널컴퓨터를 통해 지구 반대쪽 정보도 삼시간에 거실로 들어옵니다. 그 결과, 물건이나 서비스, 취미와 오락, 직종, 거주지, 국적, 가족구성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 행동의 자유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장점이지만 그곳에는 큰 함정이 있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버추얼성(性)이라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사회를 잘 상징하는 두 가지 수단인 ‘화폐’와 ‘정보’는 함께 버추얼리티(가상현실)이지 리얼리티(현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정보’는 물론, ‘화폐’도 실물경제와 상호성이 있는 단계는 그런 대로 괜찮지만 거기에서 따로 떨어져 투기성을 드러낸 머니 게임의 세계가 되면 욕망은 제한이 없어져 리얼리티 특유의 반응, 안정감과 다른 이질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귀결하는 곳은 자기 증식을 추구하며 만족할 줄 모르는 배금주의를 초래합니다. 화폐라는 것의 매력입니다.

그러므로 필수불가결한 것은 ‘화폐’나 ‘정보’ 등의 버추얼리티는 리얼리티를 보완하고 보강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정보기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해도 인간끼리 서로 직접 접하는 장(場), 즉 친근한 대화, 회의, 수업이 없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돈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대신하게끔 될 수 없음은 무인

도의 로빈슨 크루소<sup>3</sup>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버추얼 세계는 ‘타자’를 마주봄으로써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인간이 살아가는 리얼리티 그 자체라는, 힘겹고도 끈기가 필요한, 어느 의미에서는 고통까지 수반하는 내적인 갈등, 싸움 – 불교에서는 애별리고(愛別離苦: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고통), 원증회고(怨憎會苦: 원망하고 증오하는 자와 만나는 고통) 등으로 설합니다 – 과 본래 익숙해지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갈등이나 싸움이 없도록 하려는, 되도록 피해 가려는 것이 편리성, 효율성에 내장되어 있는 벡터(힘의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와 ‘타자’가 대치함으로써 생기는 자제심, 자기규율의 마음, 공덕심, 공적 관심도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보네트워크 사회를 떠받치며 구성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직함은 기존의 모든 굴레, 유대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입니다. 그 ‘자유로운 개인’은 동시에 범람하는 정보에 현혹하지 않고 자기 결정이 가능한, 땅에 발을 붙인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버추얼성에 바탕을 둔 정보화 사회는 그런 ‘개인’을 단련하는 장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보화의 장래를 전망할 때 최대 딜레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시류의 연장선상에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러므로 저는 발상을 전환하여 눈앞의 ‘일보’를 소중히 하고 싶다고 거듭 호소하는 바입니다.

빌트시아의 마을 사람처럼 ‘타자’가 입은 상처 소식을 듣고 ‘자기 발이 상처를 입은 듯이 느껴 자기 몸에 충격이 전해지는’ 것과 같은,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생생하기 그지없는 리얼리티, 통각(痛覺), 생명 감각이야말로 버추얼 세계의 폐색성에 숨통을 틔우고 나아가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전사자(戰死者)들 앞에 선 아소카왕<sup>4</sup>이 전쟁에서 평화로 희생하게 하는 내적 드라마를 펼치게

---

### <sup>3</sup> 로빈슨 크루소

18세기에 활약한 영국 소설가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표류기》의 주인공.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으로, 로빈슨 크루소가 몇 번의 항해 끝에 무인도에 표류하여 28년간 자급자족의 생활을 거쳐 영국으로 돌아가기까지 겪은 모험담을 그리고 있다.

### <sup>4</sup> 아소카왕

인도 최초의 통일왕조인 마우리아왕조의 제3대 왕. 재위는 기원전 3세기경으로 추정. 즉위 후에 카링가 지방(지금의 오릿사 지방)을 정복했을 때, 약 10만 명을 살해하고 약 15만 명을 포로로 삼았다. 그러나 이를 깊이 뉘우치고 ‘무력 정복’을 포기. 불교도로서 신앙에 눈을 뜨고 평화주의의 정치와 복지정책에 힘을 쏟았다.

한 것과 그것은 분명 근본이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돌파구, 회로(回路)는 우리 신변의 가까운 곳에서 반드시 발견될 것입니다.

## 테러와 분쟁 등의 해결은 유엔 중심으로

### ‘무통문명(無痛文明)’이라는 발상에서 착안

이러한 점에서 모리오카 마사히로 씨(오사카부립대학교 교수)의 최근 저서인 ‘무통문명론(無痛文明論)’은 현대문명의 병리를 예리하게 파헤친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세이교(聖敎)신문>(올해 1월 1일자)에서 그 착상을 “무통문명이란 고통을 피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구조가 사회 방방곡곡까지 둘러 쳐진 사회”를 말하며 “무통문명은 ‘고통’을 철저히 피하려 한 까닭에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는 가능성을 인간에게서 빼앗아 버리고 말아 그 결과, 인간은 깊은 기쁨도 없는 공허한 삶을 물건과 돈에 둘러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슬픔’이 없기에 ‘기쁨’도 없다. ‘고통’이 없기에 ‘즐거움’도 없다.

그러한 관련성이 없는 미지근한 물과 같은 사회에서 치명적으로 쇠약해지고 결락(缺落)되어 가는 것이 ‘타자’이며,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철저히 무통증화시킨 자야말로 가장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가장 타인의 호소를 들으려 하지 않으며 타인을 일방적으로 짓눌러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타자와 충돌해도 자기 쪽의 ‘틀’을 바꾸려 하지 않기에 진정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타인을 밀어 제쳐서라도’ 자신을 확장하려고 한다”라고.

실로 ‘타화자재천’이라는 마성의 작용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할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그것을, 인간의 내면부터 바꾸는 ‘생명’의 힘을 추구하고 그 권리를 되찾는 일이 급선무라는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석존의 사문유관

이러한 그의 문제제기는 우리가 신봉하는 불법과 지극히 근접한 지향성을 지닌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상은 석존의 출가 동기가 되었다고 전하는 에피소드에 ‘생로병사’를 둘러싼 ‘사문유관(四門遊觀)’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 석가족 왕자로서 태어난 석존은 무엇 하나 불편한 것이 없는, 어느 의미에서 현대의 ‘무통문명’과 흡사한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커다란 의문이 마음속에 소용돌이쳤습니다.

경문에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유복하고 이와 같이 매우 상냥하고 유연했지만 다음과 같은 생각이 일었다. 즉 어리석은 범부는 자신도 늙어가고 또 늙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도 타인이 노쇠한 것을 보면 생각에 잠겨 고뇌하고 부끄러워하며 혐오하고 있다. 자신의 경우를 간과하고.”

“어리석은 범부는 자신도 병에 걸리면서 또 병을 피할 수 없는데도 타인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보면 생각에 잠겨 고뇌하고 부끄러워하며 혐오하고 있다. 자신의 경우를 간과하고.”

“어리석은 범부는 자신도 죽게 되고 또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도 타인이 죽은 것을 보면 생각에 잠겨 고뇌하고 부끄러워하며 혐오하고 있다. 자신의 경우를 간과하고.”(나카무라 하지메 지음, 《고타마 붓다 1》)

석존의 출가 동기는 ‘생로병사’라는 인간존재의 근본에 존재하는 ‘고(苦)’를 직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고’가 생로병사의 비극에 떨고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경우를 간과하고’라고 되풀이하며 훈계하고 있듯이 그것들을 멀리해야 할 것으로 차별하는 생명의 교만함에 그 원흉이 있다는 점을 석존은 예리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 죽음을 망각한 문명이 초래한 비극

이러한 불법의 출발점은 타자의 고통이나 괴로움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문제로 삼아 정면에서 마주보는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단련하고 ‘자타 공히 행복’을 지향하는 삶을 추구하는 데에 있고, 그 힘든 작업 속에 진실한 ‘삶의 기쁨’은 살아 숨쉬고 있음을 호소한 점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무통문명론에는 없지만, ‘죽음을 망각한 문명’이라고 불리는 현대는 생로병사라는 근본과제에서 눈을 떼거나 이를 바이오테크놀로지(생명공학)나 첨단의학을 통해 표면적으로 관리하에 두려는 시도만 앞세웠습니다.

그로 인해 그런 고통들을 극복하면서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인간과 사회의 참모습을 모색하는 노력을 등한시한 면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죽음을 망각한 문명’은 죽음을 되도록 타인의

문제로서 외부적인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아픔이나 괴로움을 마비시킴으로써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각지의 대량학살과 같은 비극을 막는 사회의 브레이크(제동)를 약화하여 ‘메가 데스(Mega death: 대량 사망)의 세기’를 초래했습니다.

그 의미에서도 앞서 언급한 ‘원수폭금지선언’에서 도다(戶田) 2대회장이 “근저에 숨어 있는 부분의 뿌리를 근절하고 싶다”라고 호소한 것은, ‘죽음을 망각한 문명’의 상징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무기를 지탄함으로써 현대문명의 어두운 곳을 척결하고 그 전환을 도모하는 데에 최대의 주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타인만의 불행’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행복’도 있을 수 없다는 그러한 작은 예고이즘을 타파하고 타자 속에서 자신을 느끼고 자신 속에서 타자를 느끼면서 생명의 광채로 서로 비추어 최고로 인생을 빛내는 삶의 자세야말로 불법이 설하는 세계관과 생명관의 필연적인 귀결이기 때문입니다.

## 세계적인 대화의 장 총회 강화로 유엔 활성화를

### ‘평화부흥이사회’를 신설해 분쟁지역을 재건

이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나의 전기가 될 내년 2005년을 앞두고, ‘평화와 공생의 지구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하고자 합니다.

내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지 60년이고, 유엔 창설 60주년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60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마디를 맞이하여 저는 ① 유엔 강화와 개혁 ② 핵군축 추진과 핵폐기를 위한 방도 ③ ‘인간의 안전보장(휴먼 시큐리티)’ 확충이라는 이 세 가지 점에서 각각 언급하고자 합니다.

## 유엔 개혁 자문위원회를 발족

먼저 첫째는, 유엔 강화와 그 개혁에 관한 것입니다.

이라크 문제로 군사력 행사의 시비와 함께 커다란 초점이 된 것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심각한 대립에 따른 유엔의 불완전한 기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위구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엔 아난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유식자들로 구성된 유엔 개혁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달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①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현재의 과제를 상세히 검토할 것 ②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며 집단적 행동이 할 수 있는 공헌을 고찰할 것 ③ 유엔 주요기관의 기능 및 그 관계에 대해 재검토할 것 ④ 유엔의 조직과 과정의 개혁을 통해 유엔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할 것 등을 주안점으로 토의를 진행하여 올 가을까지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2000년 10월), 이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타이의 아난 전 총리와 21세기 유엔을 둘러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난 전 총리는 “각국이 얼마나 유엔을 효율성 있게 만들려고 원하는가, 그것이 그대로 유엔의 현실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국가의 집합체이기에 따르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유엔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엔의 존재 그 자체는 환영할 만한 것이다. ‘희망’은 있다. ‘만약, 유엔이 없다면’이라고 생각하면 ‘유엔이 있기에 세계가 더욱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확실히 일부에서는 유엔의 무력론(無力論)과 무용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의 유엔에는 시대의 변화에 걸맞지 않는 면이 적지 않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엔을 대신할 존재가 현실적으로 없는 이상, 세계적인 풀뿌리 민중이 지닌 힘을 결집하고 유엔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라크 문제의 교훈을 충분히 염두에 둔 후에, ‘앞으로 이와 비슷한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과 체제 확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연대의 기축은 어디까지나 유엔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백91나라가 가맹한 가장 보편적인 기관인 유엔만이 국제협력의 초석이 되고 그 활동에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저는 유엔 강화와 개혁에 대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긴급특별총회 통해 의견 집약

첫째는, 총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유엔헌장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주요 임무를 위임받아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결정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안보리뿐입니다.

그러나 실제 심의에서는 5개 상임이사국에만 인정되는 거부권제도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저는 모든 가맹국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대화의 장’이자, 가장 대표성이 높은 총회의 권한을 제도면이나 운용면으로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총회의 권한은 안보리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라는 내용이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안보리가 거부권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긴급특별총회를 소집하고 일정의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운용면에서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소위 ‘평화를 위한 결집’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1950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결의에 의거해, 안보리 9개국의 찬성을 얻거나 유엔 가맹국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열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 평화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대두하여 향후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 합니다.

특히 군사력 행사를 포함하는 강제조치의 시비를 둘러싸고 안보리의 분규가 발생할 경우 긴급특별총회를 개최하도록 정착하고, 거기에서 나눈 토의를 안보리에 피드백(환원)하는 틀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힘과 신뢰의 원천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평화와 안전의 위협에 대한 조치에는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프트파워의 원천인 ‘정통성’ 확보가 불가결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방도를 강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의견을 집약하고 반영하는 제도야말로 21세기 유엔에 필요한 존립기반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달에는, 유엔총회에서도 총회의 활성화와 권위향상을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듯이 보편적인 대화 포럼인 총회는 유엔 강화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분쟁지역에 ‘끊임없는 지원’을

둘째는 분쟁시점부터 평화구축에 이르는 과정까지 유엔의 여러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여 일관성을 부여하는 환경정비입니다.

근년, 분쟁지역에서 지원이 단속적(斷續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백상태’가 심각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해 5월 ‘인간의 안전보장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분쟁 중과 분쟁 직후에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체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에 입각하여, “각각 규정된 임무분담에 구애되지 않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함으로써 수많은 지원관계자가 각각의 종적조직구조에 따라 무질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상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특히 국제적인 군사개입 후에는, 분쟁 속에서 ‘보호할 책임’은 ‘재건할 책임’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즉 중요한 것은 분쟁이 멈췄는가 어떤가가 아니라 그 다음의 평화의 질에 있다”라고 하며, 모든 활동의 출발점을 분쟁에 따른 피해와 상처로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사회의 요구에 두고 단일 리더십 아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국제사회 의견 집약·반영이 유엔의 존립기반

### ‘힘에 의한 해결’ 아닌 ‘법에 따른 해결’

#### 국제적으로 강한 리더십 발휘할 기관 신설 필요

저는 근년 분쟁이 복잡해지는 속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는 의견이 고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처 방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강력하게 리드하기 위한 기관을 유엔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엔에서 그 임무가 사실상 끝난 신탁통치이사회<sup>5</sup>를 ‘평화부흥이사회’와 같은 명칭으로 발전적으로 개조하고 그 역할을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일찍이 저는 신탁통치이사회를 새롭게 바꿔 난민고등판무관과 인권고등판무관 등과 밀접하게 연계하며, 분쟁으로 괴로워하는 지역의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게 하면 어떨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도 가미하면서 ‘평화부흥이사회’가 인도적 지원에서 평화구축에 걸친 제반 활동의 추진과 조정의 근본적인 책임을 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sup>5</sup> 신탁통치이사회

유엔 창설 당시, 아프리카와 태평양 등 세계 일부의 미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전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 최후의 신탁통치 지역인 팔라우가 1994년에 독립하여, 이사회의 임무는 사실상 종료하고, 현재는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연다.

또 활동추진은 당사국과 주변국이 협의할 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활동의 진척상황을 정기적으로 관계국에 보고하는 제도를 만들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 광범위한 민중의 지원 불가결

어쨌든 유엔 강화를 실현하려면 가맹국뿐 아니라 민중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불가결합니다.

특히 유엔은 오랫동안 자금난이라는 어려운 문제도 안고 있어, 가능한 한 폭넓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브라질 카르도수 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유엔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관한 현인(賢人) 패널’을 발족하고, 시민사회의 의견 등을 전제로 한 보고서 정리를 진행하고 있어 유엔 강화의 기운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러한 조류를 한층 더 고조시키며, 2000년에 열린 ‘밀레니엄 포럼’과 같은 형태로, 내년 유엔창설 60주년에 맞춰 NGO(비정부기구)를 비롯한 시민사회 대표가 참가하여 ‘유엔민중포럼’을 개최하고 평화의 21세기를 위한 유엔 강화의 길을 만들면 어떨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창립한 평화연구기관 ‘보스턴 21세기센터’도 지금까지 유엔창설 50주년을 기해 ‘민중의 제안’을 제출하는 등 유엔지원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협력과 심포지엄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민중이 주도하는 유엔지원의 세계적인 연대를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제형사재판소 활동을 궤도에

이 유엔 개혁에 관한 제안과 함께 부연하고 싶은 것은, 잇달아 발생하는 테러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에 따라 해결’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추진하는 일이 지닌 중요성입니다.

2001년 9월에 채택된 안보리 의결에 따라 유엔에 ‘테러대책위원회’가 설치된 것에 이어, 지난해 6월 에비앙에서 열린 선진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테러대책 행동그룹’이 설치되었습니다.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 재발을 방지하려면 각국의 법제도 정비와 확충 등과 함께 끈기 있는 국제협력이 불가결합니다.

저는 이러한 국제적인 틀을 통해 예방조치에 힘을 쏟으면서 테러를 일으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과 함께 중요한 것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체결국을 늘려 활동을 궤도에 올리는 것입니다.

전쟁범죄나 대량학살, 인도주의에 대한 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판하기 위한 상설 법정인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해 3월 발족식을 거행하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각지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분쟁과 테러 등 ‘증오와 폭력의 연쇄’를 단절함과 동시에 ‘힘에 의한 해결’이 아니라 ‘법에 따른 해결’을 향한 접근을 국제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핵심이 되는 제도입니다.

어렵게 설립된 재판소가 진정한 유효성을 발휘하려면 더욱 많은 나라가 참가해서 보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불가결합니다.

특히 테러에 대해서 지난해 8월, 유엔안보리는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엔 요원이나 인도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요원 등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라크 바그다드의 유엔 현지본부에 대한 폭탄테러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런 비도한 테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면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사법제도하에서 판결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제참가학회(SGI)도, 유엔NGO로서 의식계발 등의 활동을 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원하는 세계적인 조류를 높여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주로 국가 간의 전투나 국내분쟁을 정비한 ‘국제인도법’을 강화하고, 테러에 대한 조치나 국경을 벗어나는 내전을 비롯한 새로운 사태에서도 국제인도법의 정신이 준수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핵폐기 위한 특별총회’ 등 전문기관 신설

### ‘다국간 대화’의 틀을 전향적으로 육성

### CTBT를 하루라도 빨리 발효시켜야

둘째로 핵무기 군축과 폐기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달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관의 추가의정서<sup>6</sup>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합의를 한 데 이어 리비아도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제조계획의 전면폐기와 국제사찰단을 즉각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모두 핵불확산체제 면에서 큰 전진이라 할 수 있지만, 핵무기의 위협을 지구상에서 없애기에 길은 아직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근년 핵문제의 주요 테마인 ‘불확산’에서 ‘핵군축’ ‘핵폐기’로 중점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력하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물론 ‘불확산’을 위한 제도정비는 핵군축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1996년에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기 발효를 거듭 호소해 왔습니다.

조약에서 정한 핵실험을 감시하는 국제적인 관측망의 정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핵실험을 숨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7년간에 걸쳐 미발효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해 신형 소형핵이나 강력한 지중관통형 핵폭탄의 연구예산을 계상(計上)하는 등, 핵실험 재개로 이어지는 움직임도 걱정스럽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조약의 발효요건국인 알제리가 비준했으나, 미국을 비롯해 아직 비준하지 않은 요건국인 12개국이 비준하여 CTBT가 하루라도 빨리 발효되도록 국제여론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CTBT에 관련하여,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의 서약을 세계적인 규모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나하나 진지하게 쌓아 올렸을 때 비로소 앞에서 언급한 문명의 증거로서 자제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메시지로써 널리 민중의 마음에 전하는 것이 전쟁이나 테러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는 점을 거듭하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보유국이 핵군축을 현실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핵관련 조약의 신뢰성이나 실효성을 높이고 불확산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 <sup>6</sup> 국제원자력기관의 추가의정서

핵사찰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와 보장조치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추가적으로 맺는 의정서. 신고나 미신고에 관계없이 모든 핵관련 시설에 대해 예고 없이 실시하는 사찰을 포함한 강제력이 있는 사찰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재 79개국이 서명. 비준은 일본 등 38개국에 그치고 있다.

## 핵군축 서약은 NPT의 기둥

본래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주요 목적은 핵무기 불확산에 있지만, 한편으로 핵군축조치에 대한 성실한 교섭이 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만큼 핵관련 조약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들이 참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1995년에 조약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었을 때, 이것과 보조를 같이하여 ‘조약의 재검토 과정의 강화’와 ‘핵불확산과 핵군축의 원칙과 목표’라고 불리는 문서가 채택되어 핵군축을 위한 틀이 정비된 것도 그런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의 표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제언에서 NPT재검토회의가 실시되는 내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0년에 해당한다는 것에 입각하여 각국 정상이 참가한 ‘핵폐기를 위한 특별총회’의 개최를 제안한 것과 아울러 유엔에 핵군축 전문기관을 새롭게 설치할 것을 토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2000년의 재검토회의에서 채택된 최종문서에 ‘핵무기의 완전폐기를 달성한다는 핵무기국의 명확한 약속’이 포함되어 ‘핵무기 완전폐기로 이끄는 과정에 모든 핵무기국의 적절하고 조속한 시기의 참가’가 합의된 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여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핵보유 5개국이 NPT 모든 가맹국에 대한 공통의 책임감을 갖고 교섭을 시작하여 핵군축의 성실한 이행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2005년의 재검토회의나 혹은 특별총회를 향해 핵보유 5개국이 교섭개시에 합의하는 것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핵무기 문제를 타개하는 데에 실마리를 푸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 위에 ‘핵폐기를 위한 예정표 만들기’에 착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이 핵무기 문제에 관련하여 지금 큰 초점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2002년 12월,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한 이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불안이 국제사회에서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해 8월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 일본 6개국이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의장총괄에서 볼 수 있듯이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타개할 것’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 등의 점에서 합의하는 등 회담의 틀을 유지하고 대화를 계속하는 데에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회담재개는 난항하고 있으며 이달(1월) 북한이 미국의 비공식대표단을 받아들여 핵관련 시설 사찰을 인정하는 등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상황은 그다지 진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 납치문제를 절대로 뒤로 미루거나 피해 갈 것은 더더욱 아니지만, 동시에 각국이 의장총괄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어렵게 실마리를 잡은 ‘다국간 대화’의 틀을 전향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2차 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것을 바라는 것과 아울러 이 6자회담을 제도화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신뢰조성을 끈기 있게 추진하여 마침내는 ‘동북아시아 공동체’와 같은 다국간 포럼이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설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보호받는 쪽에서 공헌하는 쪽으로

셋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안전보장’ 확충입니다.

‘인간의 안전보장’은 근년, 종래의 안전보장관을 재고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것으로 국가의 안전에서 인간의 안전으로 중심축을 옮긴 새로운 안전보장의 틀입니다.

그것은 전쟁이나 테러, 범죄 등의 직접적 폭력뿐 아니라 빈곤이나 환경오염, 인권억압이나 차별, 교육이나 위생분야에서 후진성 등 인간의 안전과 존엄을 위협하는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극히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아난 사무총장은 연두 메시지에서 “이라크 전쟁으로 빈곤, 기근, 오염된 식수, 환경악화, 전염병 등 1백만 단위의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위협에 대한 대처노력이 소홀했다”면서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올해는 그 조류를 바꿔 대책을 강구하도록 호소했지만, ‘인간의 안전보장’이 주요 대상이 된 배경에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이 그 기초적인 개념을 제창한 이후,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어 2001년에는 ‘인간의 안전보장위원회’가 설립, 지난해 5월에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의논한 것을 토대로 인간의 안전보장을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없으면 안 될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위협이나 상황에서 인간을 지키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착안한 것은 그것을 실현하는 2개의 기둥으로서 인간의 ‘보호’와 함께 ‘능력강화’를 들고 있는 점입니다.

즉 사람들이 단순히 ‘보호받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갖추고 있는 강인함이나 힘을 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스스로 행복을 획득하며 사회에 ‘공헌한다’는 삶의 자세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안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결한 요소의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또는 자신 이외의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키우는 점이 ‘인간의 안전보장’과 국가의 안전보장, 인도주의 활동 혹은 많은 개발사업과 상 위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은 능력을 강화시켰을 때 비로소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잠재능력까지 꽃피울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통해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도전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평화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 여성교육 보급이 사회안전의 키

그 의미에서 제가 ‘인간의 안전보장’을 확충시키기 위해 가장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제언의 앞부분에서 강조한 것처럼 뭐라고 해도 ‘교육’입니다.

세계에는 현재, 읽고 쓰기를 하지 못하는 8억6천 명의 성인과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1억2천1백만 명의 어린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UNESCO: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를 중심으로 ‘만인을 위한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여 기초교육의 완전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유엔의 문맹퇴치운동 10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움의 빛을 비추고 본래 갖추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 가능성을 개화시키는 데에 불가결한 것이 글을 아는 것입니다.

특히 글을 모르는 사람의 3분의 2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문맹률을 낮추고 초등교육을 보급시키는 것은 여성 자신뿐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유니세프(UNICEF: 유엔 아동기금)에서 발간한 ‘세계 어린이 백서’에서도 세계 개발목표의 달성은 여성 교육의 진전 없이는 전부 불가능하다며, 국제개발 노력의 시급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등의 면에서 초등교육의 보급이 뒤떨어진 나라들이 많으며 그 장벽을 국제협력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이나 세계은행의 시산(試算)에 따르면 세계에서 소비하는 연간 군사비의 4일분을 매년 교육분야로 돌리면 2015년까지는 전 세계에서 초등교육 보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자료를 발표했습

니다.

이 초등교육의 완전보급은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목표’<sup>7</sup>의 8대 목표 중 하나로 저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예를 들어 ‘글로벌 초등교육기금’과 같은 형태로 국제적인 자금협력의 틀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 인권교육 추진으로 ‘평화·공생의 지구사회’를

####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계발운동

#### 민중의 글로벌한 연대로 ‘평화의 문화’를 구축

이 기초교육을 보급하는 노력과 함께 전쟁이 없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 ‘인권교육’입니다.

분쟁을 없애려면 그것을 낳고 악화하는 적대의식이나 차별감정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토양조성이 불가결합니다.

그리고 분쟁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도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맞물려 실업문제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마찰이 일어나 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인(공동 저자)으로 미국의 언론인 고(故) 노먼 커즌스 씨는 “인간의 상처나 아픔에 무관심한 태도는 교육실패의 더할 나위 없는 명백한 증거다”(《인간의 선택(Human Options)》, 1981)라고 경고했듯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사회에 증오와 분노의 감정이 그대로 가라앉아 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저는 3년 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유엔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세계회의’에 보낸 메시지에서 ‘유엔 인권교육 10개년’(1995~2004년)에 이어지는 형태로 ‘유엔 평화를 위한 인권교육 10개년’을 설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8월, 유엔의 인권소위원회에서 ‘제2차 인권교육 10개년’의 설치를, 유엔총회에서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

#### <sup>7</sup> 밀레니엄 개발목표

2000년 유엔의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선언과 1990년대에 개최하여 여러 회의에서 채택한 국제개발목표를 하나로 통합한 것.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것으로 ‘극빈과 기아의 추방’ ‘유치아 사망률의 감소’ 등 8대 목표를 말한다.

저는 이 움직임을 환영하는 동시에 그 실시에도 있어서는 특히 다음 세대를 짊어질 어린이들에 초점을 맞추어 '평화와 공생의 지구사회'를 만드는 데에 연결되는 인권교육의 추진에 힘을 넣었으면 하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노예제와의 투쟁과 그 철폐를 기념하는 국제적인 의의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거의 무거운 교훈을 발판으로 인종차별이나 불관용을 극복하는 토양을 길러야 합니다.

SGI도 유엔기관의 활동지원이나 다른 NGO와 연계를 취하면서 평화교육과 인권교육의 세계적인 추진을 위해 최대한 협력할 생각입니다.

### 정보사회의 윤리

이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근년, 정보사회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매스미디어가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감정을 선동하는 예나, 인터넷상에서 특정 민족이나 인종을 공격하는 페이지도 눈에 띄게 증가하여 분쟁이나 증오에 따른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스위스에서 유엔이 주최한 제1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가 열려 정보를 '가진 쪽'과 '갖지 못한 쪽'의 격차가 확대되는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격차)' 문제가 큰 초점이 된 것을 비롯하여 정보사회의 올바른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토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보도의 자유나 미디어의 독립성이 인터넷상에서도 불가결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미디어에 정보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취지 등을 담은 '정상회의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내년에 튀니지에서 열리는 제2회 회의를 향해 정보사회의 논리에 대해 더욱 깊은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도적 경쟁'을 세계적인 규모로

여하튼 '인간의 안전보장'을 추진하려면 새롭고 대담한 발상과 끈기 있는 노력의 축적이 불가결합니다.

이미 타이처럼 내각에 '사회개발 및 인간의 안전보장부'를 설치한 나라도 있지만, 이런 예 등을 참고로 하면서 각국이 마키구치 회장이 지향한 '인도적 경쟁'과 같은 형태로 절차탁마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얻은 정보나 경험을 공유하거나 기술교류와 인적교류를 추진하는 등 '인간의 안

전보장'을 세계적인 규모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도전은 국가수준에 한정하지 말고 광범한 민중의 이해와 행동의 지원을 받았을 때 비로소 결실이 가능합니다.

'지구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싶다'라는 스승의 염원을 가슴에 안고 제가 창립한 도다기념 국제평화연구소에서는 '인간의 안전보장'과 '지구사회의 운영'을 묶은 연구프로젝트에 힘을 쏟아 평화연구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이 일어서서 자신의 가능성을 무한정 꽃피우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엠파워먼트(계발운동)'는 SGI가 추진하는 '인간혁명' 운동의 골격을 이루는 이념이기도 합니다.

이 이념을 근간으로 우리는 사회적 활동으로써 유엔의 군축 캠페인과 인권 캠페인 그리고 지구정상회의(유엔 환경개발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에 협력하는 형태로 '핵위협'전, '전쟁과 평화'전, '현대세계의 인권'전, '환경과 개발'전 등 세계 각지를 순회하며 풀뿌리 민중운동 수준의 의식계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는 평화교육의 일환으로 파리 유네스코 본부와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등에서 '라이너스 폴링과 20세기'전을 순회 개최했고, 이번 2월에는 SGI가 중심이 되어 뉴욕 유엔본부에서 '세계의 어린이를 위한 평화의 문화 건설'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런 모든 전시는 시대변혁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 먼저 지구를 둘러싼 문제를 하나하나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생각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신념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 만년의 미래를 향해 '평화의 씨앗'을

저는 현재, 21세기 세계가 기조로 해야 할 '평화의 문화'를 제창한 평화학자 엘리스 볼딩 박사와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담에서 박사는 "인간은 현재의 이 시점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즉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고 맙니다"라고 말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건설적인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돌이켜보면 1975년 1월, SGI 발족에 즈음하여 저는 세계에서 모인 멤버 앞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자기 자신이 꽃을 피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라는 씨앗을 뿌리는 존귀한 일생을 마쳐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 신념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평화라고 해도 결코 일상생활을 벗어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사람이 현실의 ‘생활’ 속에 그리고 ‘생명’과 ‘인생’에 어떻게 평화의 씨앗을 심고 기르는가. 여기에 영속적인 평화를 위한 견실한 전진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전에 도다 2대회장은 만년의 미래를 전망하고 “머지않아 창가학회는 장대한 ‘인간’ 촉발의 대지로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긍지와 사명감을 가슴에 안고 내년 SGI 발족 30주년을 향해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는 민중의 세계적 연대를 더욱 넓혀가고자 합니다.